

순정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갑니다.”
(2고린 5,7)

연중 제11주일

제1독서 : 예제17,22-24

제2독서 : 2고린5,6-10

복 음 : 마르4,26-34

강론

소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성우 신부 / 화산동 천주교회

‘아빠가 마신 한 잔 술
차가 마신 한 말 술’

전주에서 김제쪽을 향해 가노라면 도로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표어형식의 경고문이다.

표어라는게 다소 과장이 섞이는 법이기는 하지만 순수하고 직설적인 어린아이의 표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게 만든다.

큰 병원 응급실에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이고 보면 ‘人命은 在車’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대형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어디 교통사고 뿐이겠는가?

각종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는 터이다.

우리를 삶을 관찰해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그 존재가 미미해서 믿기지가 않지만 필연코 실현될 확실한 현실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다.

말 한마디로 윈수를 사거나 천냥빚을 갚게 되는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안에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몇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살게 마련이다.

육안으로 확인하기조차 힘들만큼 작디 작은 씨앗 속에서 온갖 새들이 깃들일만한 거대한 나무를 어찌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희망이라는 눈은 기적을 본다. 신앙이라는 가슴은 기적을 현실로 체험한다. 기적이란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쁨과 평화가 하늘나라의 표징일진대 기쁨과 평화를 건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애정이 담긴 미소 한번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고 어찌 말할 수 없겠는가? 나누면 커지고 확산되는 하늘나라의 법칙은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잔나 베레타 몰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잔나 베레타 몰라’를 “모든 어머니의 후보”로 선포했다.

1922년 8월4일 밀라노 마젠타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13형제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났다.

잔나는 소아과 전문의로 마흔살이 되던 61년 네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내리 딸만 셋을 둔 잔나는 은근히 아들이기를 기대했으나 딸로 판정을 받는데다 자신이 자궁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절망에 빠졌다.

아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주변에선 아기를 포기하고 암 치료를 받기를 권했다.

가톨릭 의사로 생명을 신성하고 불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 잔드는 “아기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이 똑같은 것”이라며 “치료를 위해서라도 낙태는 중죄”라며 죽음을 선택했다.

결국 잔나는 62년 4월21일 자신의 네번째 딸을 낳고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잔나에게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했다. 40세라는 젊은 나이라든가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포기한 것이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표지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이어서 낙태를 하는 현실에서 어떤 것이 위대한 모성이고 숭고한 희생인가를 “모든 어머니의 후보” 잔나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순정이 산책



예수님의 마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1994년 6월18일~26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의 원래 명칭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29년 전인 1965년 주교회의는 1949년 5월 이후 점차 목자 없는 침묵의 교회로 변해버린 북한 교회를 공적으로 기억하는 날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에 접어든 오늘의 남북 관계가 분단의 갈등과 대립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주목하여, 한국 교회는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여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든 신자들이 기도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91년의 춘계 주교회의에서 이처럼 27년 만에 ‘침묵의 교회’라는 명칭 대신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선교 3세기에 진입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인식과 아울러 2000년대 복음화 목표를 향한 능동적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는 6월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44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6월26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이날을 잘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는 한국 교회 전체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새 역사를 여는 뜻깊은 기도운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날(6월 18일): 민족 분단의 죄책에 대해 반성합니다.
- 둘째날(6월 19일): 참된 용서로 분단의 아픔을 씻어냅니다.
- 셋째날(6월 20일):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 넷째날(6월 21일): 갈라진 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 다섯째날(6월 22일): 북한 동포를 위하여
- 여섯째날(6월 23일): 북한 교회를 위하여
- 일곱째날(6월 24일): 북한 선교를 위하여
- 여덟째날(6월 25일): 평화통일을 위하여
- 아홉째날(6월 26일):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84년에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200년의 역사를 반성하는 가운데 분단 현실에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통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가 임하심을 위로하였듯이 이제 ‘진정한 겨레의 통일은 온겨레가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당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 지표가 구호로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200주년을 통해 ‘이 땅에 빛을’ 증거하고자 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은 오히려 냉담과 무관심, 편의주의적 사고방식과 이기적 신앙에 빠져들고 있고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모습에서 과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과연 무엇을 뜻함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

진정한 화해와 일치의 출발점은 거듭 태어남에 있다. 스스로의 삶에서 거듭 나서 민족의 삶에까지 그 거듭 태어남의 의미를 연장시킬 수 있을 때 화해와 일치의 과정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제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선교 3세기를 향한 민족 복음화의 시대적 소명인 동시에 우리 자신과 7천만 겨레가 거듭 태어나는 부활의 새 징표이다.

이를 망각하고 무관심 속에 둔다면 겨레의 구원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계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당뇨식·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종환(유스더노)
이미연(마리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제주 보리빵
특약점모집(성당 신심단체 환영)
100% 무방부제, 무가당제품
당뇨, 비만, 미용건강식
문재원(모니카)
☎ (0652)222-9787

리틀핸즈
·원목가구 주문 제작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수(에밀리오)
김경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교리상식①

예수 성심 성월 ①

성심의 공경

5월의 성모성월을 통하여 성모님 공경에 인도된 신자들은 6월에 예수님의 본심(本心)인 예수 성심을 알고 흠숭하도록 한 단계 깊이 들어간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몸의 중심에 있는 심장이 사람의 온몸에 피를 공급하듯이 주년 전례의 중간인 6월의 예수 성심 성월과 예수 성심 대축일은 주년 전례 전체에 생생한 힘을 준다. 예수님의 마음(聖心)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다. 사랑 때문에 수난하시는 인자(人子),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께서 한 로마 군사에 의하여 심장이 꿰뚫리고, 그로써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 상호간의 사랑을 호소하신다.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영육을 포함한 인격체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요한 19,34). 이 물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초차연적 생명을 부여하는 성세성사를, 그리고 피는 사랑과 일치 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상징하게 되었다. 즉 강생과 신비와 수난과 죽음, 성체성사 설정 등을 통하여 보여 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일컫게 된 것이다. (마태 11,29 참조)

교구 소식

1. 천호 피정 안내 : 6월14일(화) 주제-성서에 나타난 가정, 강사-김준호 신부
6월18일~19일 주제-가정의 평화, 강사-방윤석 신부
문의 73-6600
 2.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6월19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3. 교구 성소후원회 각 본당 임원단 모임 : 6월19일(일)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4.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6월1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5. 성빈첸시오 아바올로회 전주교구 중앙이사회 1일 임원 봉사 : 6월18일(토) 오후3시
장소-양노원
 6. 성모기사회 피정 : 6월18일~19일 오후2시 장소-천호성지
출발-효자동 성당 오후2시, 전동 성당 오후2시20분, 덕진 성당 오후2시40분
 7. 베델성서 수료자 피정 : 6월26일(일)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당, 지도-범석규 신부
- ※ 축! 명영 : 13일(성 안토니오) 양재철 신부님

성소모임

- 사람의 씨튼수녀회 : 6월19일(일) 오후1시30분 동산동 성당(0652)212-3233
- 전교가르멜수녀회 : 6월19일(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 성모영보수녀회 : 6월19일(일) 오후2시 상지원 수녀원 (0653)862-0880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7)

인체에 생리적 활성이 높은 물은 차가운 물이고, 위생보관을 위해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요십이 (1085) 김병모

여보세요. 나으리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수포추적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경우는
어느때인가요?
국정조사때도
못하나요?

야 당이 하자고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이 루갈다
몸고상(십자가)

고산 성당 제작 판매'

- 대- 13,000원
- 소- 7,000원
- 판매처-고산 성당

☎ (0652)71-4171

초대합니다

용머리 신축을 위한 바자회

- 일시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용머리 천주교회

초남리에서 치명자산까지

이 책은 유행감의 생애와 사상, 유 요한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삶과 영성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을 놓은 초기 전주교구 순교자들의 삶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 가격 : 2,000원
- 천주교 교구청 홍보국 (0652)85-004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미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새롭게 시작합니다
관인 정석속셈학원
· 국교부 : 전과목(토요일-영어, 한자, 비디오회화) · 중등부 : 영어, 수학(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상담문의
박대길(벨라도) 구미숙(사라)
우아동 양우신협 근처
☎ 75-1282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환경학교수강생및회원모집
환경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의 아들, 딸이 다음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을 위한 소중한 선택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 86-7977, FAX 87-6637
상임의장 전봉호 공동의장 김치덕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1주일
 - ◎ 축! 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 "축" 세례명 축일: 16일, 여 무갈다 수녀님
 많은 기도가바랍니다.
 - 2. 반희장 경질: 인후9반 송영순(아네스)→유재간(안나)
 수고하시겠습니다.
 - 3. 견진교리: 14~17일, 21~24일-후 3시, 저녁미사 후
 중·고생 견진교리: 12일, 19일-후 3시
 18일-저녁미사 후
 - * 견진성사 준비에 만전을!
 - 4.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③재속형제회(18일 후 2시)
 ④대견회(19일 장엄미사 후)
 - 5. 금주 청소: 중노22, 27반
 차주 청소: 인후1, 2반
- ☐ 지난주 봉헌금: 992,540원 ☐ 교무금: 1,20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11주일!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1. 프란치스코 3회: 6월12일(오늘) 오후 2시
 - 2. 성심회: 6월14일(화) 오전 10시30분
 - 3. 성모회: 6월1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성전 보수현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박성열(무가)-30만원, 최남순(바올라)-20만원, 배정환(야고버)-10만원, 익명 3명-각 10만원, 홍순애(테레사), 유남수(시몬) 2명-각 5만원, 남정남(베로니카)-3만원, 최영자(아네스)-1만원, 지난주 신입금-1백4만원, 6월5일 헌제-2백5십8세대 신입하였음.
 - 5. 첫영성체 교리를 지금 받고 있으니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882,450원 ☐ 교무금: 82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필

- 1.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해설사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3.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5. 부녀회: 16일(목) 오전 10시
 - 6. 성우회: 19일(일) 공식미사 후
 - 7. 성당 청소: 18일(토)-구세주의 모친Pr
 일치의 모후Pr
 - 8.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씨
 독서-오교성 씨 부부
 봉헌-박남수 씨 가족
 - 9. 차주 전례: 해설-조옥례 씨
 독서-강기연 씨 부부
 봉헌-김영기 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639,910원 ☐ 교무금: 1,114,2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택

- ◎ 연중 제11주일(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2. 사라회: 14일(화) 오전 11시
 - 3. 배애태회: 15일(수) 오전 11시
 - 4. 구역반장 회의: 16일(목) 오전 11시
 - 5. 차주: ①바나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6. 세실리아 성가대 임원 개편
 단장: 김성자(젤마나) 부단장: 김진희(수산나)
 총무: 김숙희(베로니카) 회계: 장태순(소피아)
 →성가대 반주를 봉사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7. 예비자 교리반 안내
 일요일반-전 9시(일반) 화요일반-후 8시(젊은이)
 목요일반-후 8시(직장인) 금요일반-후 2시(주부, 노인)
 토요일반-후 4시(중·고등부)
 - 8. 감사합니다: 감사현금(익명-일백만원, 익명-일십만원)
- ☐ 지난주 봉헌금: 1,870,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 신자의 의무인 주일미사를 결하지 맙시다.
 -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8일(토) 저녁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재: "아빠 하느님" 책값 900원
 - 3. 축! 혼인: 신앙-박현규, 신부-유미숙(말지나)
 12일(오늘) 오후 2시 상관 성당
 - 4. 주일현금 배가운동: 더욱 정성껏 봉헌합시다.
 - 5. 성소후원 회장단 모임: 19일(일) 오전 10시30분 센터.
 - 6. 금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 7. 차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 8.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김봉길 ②임행남
 봉헌-안복성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택용 ②우경숙
 봉헌-황상호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346,420원 ☐ 교무금: 353,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부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삼근

- 1. 꾸르실료 M.E 감습 신청: 19일까지 마감
 꾸르실료 일정: 남성 48차 7월28일~31일까지
 여성 46차 8월4일~20일까지
 M.E 감습회 일정: 8월19일~21일, 11월18일~20일까지
 - 2. 평화 M.E 가족대회: 19일 10시 동상면 용동
 - 3. 교구 성소후원회 임원단 모임: 19일 전 10시30분 센터
 - 4. 청소년 수련회 장소 답사: 14일 11시 자모회 동반
 - 5. 주간 기도회 순회: 1.2.3구역 요일과 시간 보고
 - 6. 성체회 1주년 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구이 부용집
 - 7. 평화 기사회 모임: 16일 저녁 8시 사제관
 - 8. 신앙간증 강연: 19일 주일 매 미사 김준권(안드레아) 형제
 - 9. 회의: 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15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임마누엘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성소후원의 날-매월 셋째주 공식미사 후로변경
 후원회비는 사무실에 납부바람
 - 10. 사제 양성 후원 저금통 현금: 3,271,010원 감사합니다.
 - 11. 사모나 팔찌 판매(건강팔찌): 값-55,000원
- ☐ 지난주 봉헌금: 1,109,600원 ☐ 교무금: 1,016,000원